

‘수소경제’ 외치는 제주, 수소차 보조금 ‘無’

총선 앞뒤 여야 기싸움 ‘과열’

민주당 도당 “국힘 후보들 불통 행보” 국민의힘 도당 “20년 고인물 교체해야”

전국 시도 중 유일... 도 “충전시설 확충 후 내년 지원” 국가 보조금 2250만원... 시도별 1000만~1500만원 추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제주도만 자가용 수소차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소경제’를 외치는 제주로선 친환경 차량에 대한 지원이 타 지자체에 견줘 뒤쳐질 뿐만 아니라 타지역에서 수소차량을 매입해 제주로 유입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어 문제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자가용 수소차량에 대한 2024년도 국가보조금은 2250만원으로 동일하다. 여기에 시도별 지원금은 서울·대구·인천·광주·대전·세종·경북 각 1000만원이며, 나머지 시·도는 1100만원에서 전남의 경우 최대 1500만원까

지 지원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 차이는 국내에서 생산하는 현대 넥소가 유일하며, 차량 1대당 가격은 7000만원가량이다. 이에 차량 구매자는 국가 보조금에 차량 등록 해당 시·도별에서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다. 서울에서 차량을 구입하면 보조금은 3250만원으로, 400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차량을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점차 ‘수소경제’를 지향하는 제주도는 자가용 수소차량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전무하다. 예산은 물론 보조금 지원액 산정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수소차량은 대부분 관용차량으로 민간 보유

분을 포함해 넥소 28대와 버스 9대가 있다. 충전소는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에 위치한 함덕그린수소충전소 1곳 뿐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올해 현재까지는 자가용 수소차량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은 없고, 내년 민간 수소 충전시설을 확충한 이후 보조금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라며 “그린수소 민간판매가격에 대해서는 현재 제주시 구좌읍 행원 소재 그린수소 생산시설에서 데이터를 토대로 적정가격을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지역 업체 1곳이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공모한 ‘2024년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 민간자본보조사업’에 선정돼 국비 84억원을 지원받는다. 해당 업체는 제주시 화북동과 한림읍 귀덕리에 사업비 60억원(국비 42억, 민간 18억)

을 투자해 수소충전소를 조성한다. 기존 동부지역 충전소에 도심권 및 서부지역에 충전시설을 추가로 구축해 수소 모빌리티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업체는 함덕 그린수소 충전소의 시공 업체와 수소충전소 및 저장시설 설치를 비롯해 수소 운송·공급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 체결했다.

수소차량은 지구온난화와 대기오염 등을 야기하는 이산화탄소와 질소산화물 등을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차량이다. 미세먼지 저감과 공기 정화는 물론 운행하면서 산소를 내뿜기 때문에 1만대 운행 시 나무 60만 그루를 심는 효과와 맞먹는다. 또한 충전시간이 짧으며, 1회 충전하면 6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일(10일) 치러지는 가운데 여야 정당간 기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8일 논평을 통해 4·10 총선 제주지역 국민의힘 소속 후보들에게 시민사회 정책 제안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 등 불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도당은 “언론 보도를 보면 민주당은 제주분부와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의 정책 제안에 대해 국민의힘 고광철·김승욱·고기철 후보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면서 “또한 제주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소비자후행동제주, 한살림제주 등의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김승욱 후보는 답변했지만 고광철·고기철 후보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또 민주당 도당은 “김승욱 후보는 일부를 빼고는 답변한 것으로 보이나 ‘민심을 제대로 받들고 주민분들의 뜻을 헤아리겠다’고 외치던 고광철 후보와 ‘고집소통’을 외치던 고기철 후보는 불통 행보를 보였다. 고광철·고기철 후보의 불통 행보는 유권자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제주도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면서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투표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정책 제안에 성실히 답변하지 않은 이들 후보의 불통 행보에 유감”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도당 선대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무허가 건물을 신고하지 않은 서귀포시 선

대구 국민의힘 고기철 후보와 관련해 “경력과 학력, 재산 등을 거둬 공표한 고기철 후보는 사퇴로 책임져야 한다”며 “고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죄 해당 여부에 대한 선관위 조사와 수사당국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이날 “20년 민주당 특유의 고인물을 교체해달라”는 논평을 발표하는 등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도당은 “이번 선거는 20년 특유의 고어있는 제주정치를 교체하고 미래로 나가느냐, 아니면 끊임없는 발목잡기 압박 독재를 통해서 과거에 머무느냐의 기로에 선 엄중한 선거다”면서 “제주지역은 민주당의 오만함처럼 깃발만 쏘면 당선되는, 특정 정당의 텃밭이 아니다. 20년 동안 제주 민주당의 정치력과 대안 부재는 이미 검증이 됐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도당은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주의 경제 여건이다. 갈수록 악화일로로 걷는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소득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면서 “그런데도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제주도당은 특하면 정부 탓으로만 돌리며 본인들의 정책역량과 대안을 보여줘 본 적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을 움직여 지역 발전을 모색하고, 지역 국회의사의 다양성을 도모해 전략적으로 제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선택을 해달라”며 “수십년의 독점으로 인해 민심의 소리에 무뎠지고 행동에 굶픈 제주 정치권이 대오각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태윤기자

도, 취약계층 가정 대상 보일러 무료 점검·수리

제주특별자치도는 취약계층 가정을 대상으로 보일러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일러 무료점검 및 고장 수리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제주도와 한국열관리시험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가 협력해 추진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저소득층 대상자들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홀로 사는 노인 가정,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등이다. 제주도는 사업을 통해 가정 내 보일러 무료 안전점검 및 수리로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에너지 효율을 개선함으로써 가스사고 예방 및 에너지 절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도와 한국열관리시험협회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해 도내 에너지 취약계층 125여 세대에 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4월 10일 꼭 투표하세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을 이틀 앞둔 8일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시청 인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6월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제주시는 오는 6월 28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1530개 중 연동·노형동, 애월·한림읍 등 서부지역에 위치한

800개다. 나머지 700여 개는 하반기에 지도·점검한다. 시는 앞으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행위를 비롯해 ▷중개보수(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중개사

무소 등록증·중개보수 등 등록사항 미제시 ▷자격증 무단 대여 또는 무등록 중개행위 ▷입대차 중개시 설명의무 위반 등을 점검한다.

한편 지난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서는 150여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도시숲 조성 협력기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과 함께 탄소흡수원 확충 등 기후위기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사회공헌을 위해 추진하는 ‘제주 도시숲 조성’에 참여할 기업을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

기업 참여 도시숲 조성 대상지는 제주시 사라봉공원 일원으로, 도는 장소를 제공하고 기업에서 도시숲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라봉공원은 제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주십경 중 하나인 사봉낙조로, 지는 노을과 바다가 아름다운 곳으로 알려진 명소다. 이태윤기자

최신 국내육성 감귤 묘목 생산 전문업체

전망 좋은 신품종 감귤 만감류등 각종묘목을 선별하여 최상의 상품을 공급해 드립니다.

윈터프린스

탐나는봉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귤나무

품질이 우수한 품종 1~4년생(포도묘, 일반묘)
윈터프린스 / 탐나는봉 / 사라향 / 하례조생 / 미래향 / 제라온
미니향 / 탐빛1호 / 무봉

농가보조지원 우량품종 1~3년생(포도묘, 일반묘)

레드향 / 한라봉 / 천혜향 / 황금향 / 우리향
궁천조생 /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몬

가정원에 조경수 2~7년생(포도묘, 화분묘, 일반묘)

하귤 / 팔삭 / 세미늘 / 금귤 / 당유자 / 머틀립오렌지

감귤묘목 수출전문업체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등 5개국 수출)

감귤 무병묘생산 정부지정업체 (무병묘생산, 모수포 보유)

보조사업 묘목공급 지정업체 (원지정비의 지원사업 서류가능)

제주한라농원 감귤류묘목 나무시정!!!

❖ 1년생 규격묘, 2~5년생 일반묘, 포도묘, 화분묘 분양 ❖
❖ 정식/보식용 묘목 소량도 화시판매 가능 ❖

제주한라농원은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이며, 우수신품종을 농촌진흥청 국유품종보호(통상실시권)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판매하는 중요전문업체입니다.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쿨고리!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쿨'고리가 있습니다!

골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 골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골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골고리 작업세트 구성

골고리+고정판+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골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